

# 경계에 선 삶들, 지워지지 않은 역사를 묻다

심영의 작가 장편소설집 '경계인들' 출간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기억하고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유산과 분단의 상흔 속에서 살아가는 ‘경계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심영의 소설가의 장편소설 ‘경계인들’(푸른사상판)이 출간됐다.

위안부 문제·납북 어부·일본인 처 살 통해  
역사 왜곡과 한국 근현대사 속 모순 조명

이번 작품은 역사적 폭력과 왜곡 속에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며, 한국 근현대사의 구조적 모순을 되짚는다. 소설은 남과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어부, 좌우 대립 속 방화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여성의 딸, 일본인 보육원에서 성장해 한일 간 뒤틀린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학자 김은주 등 다양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의 삶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문제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심 소설가는 “납북 체제 경쟁 속에서 납북 어부들이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되고, 그 가족까지 연좌제로 고통받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구조의 문제”라며 “이러한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반복되는지 들여다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작품에는 일본 극우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일본 여성 활동가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일부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이 고차한다. 작가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 ‘진실을 향한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다. 그는 “어떤 이는 왜곡과 부정을 반복하고, 어떤 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한다”며 “그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인간의 내면과 선택을 따라가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결혼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 처’의 삶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위치에서 사회적 비난과 모욕을 감당해야 했던 이들의 존재는 ‘경계인’이라는 개념을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심 소설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양쪽 모두로부터 배척받는 이들의 삶은 우리가 외면해온 역사적 단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태도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도시 재개발 갈등 속 가족사까지 연결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주민들의 이면에도 해소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가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윤정모 소설가는 이 소설집에 대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인지,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인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의식인지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탐문한다”며 “인물들의 복합적인 동기까지 세밀하게 들춰내며 서사의 밀도를 더한다”고 평가했다. 심 소설가는 전작 ‘엔안의 노래’를 통해 항일운동가 정울성의 삶을 조명하고, 소설집 ‘그날들’에서는 5·18, 부마항쟁, 여순사건 등 근현대사의 비극을 다뤘었다. 이번 작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일제강점기의 유산과 이후 이어진 분단과 갈등의 문제를 탐색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단과 갈등 역시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정확한 역사 인식 없이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설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소설가는 올 가을에도 유사한 맥락의 소설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새로운 책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진은영 글, 이수지 그림  
세월호 참사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억해 온 두 작가가 만났다. 열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 못한 아이를 위해 쓰였던 진은영의 시 옆에, 참사 이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담아 왔던 이수지의 그림이 나란히 놓였다. 너무 이른 이별 뒤,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슬픔의 대가족’이 된 우리를 조금 더 넓어진 품으로 끌어안는 이 시 그림책은 세상 모든 아이의 삶을 응원한다. /조목골(우리학교)·1만8천원



▲괄호 밖은 안녕=이주혜 저  
이 책에는 ‘번역가 이주혜’로서의 면모가 곳곳에 담겨 있다. 번역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세상을 엮어내는 작업이라면, 이주혜는 이를 소설로 옮겨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해석에 한 발짝 다가가려 분투한다. 표제작 ‘괄호 밖은 안녕’은 여행 중인 번역가 화자를 내세우며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여행중 산속에서 맨발의 젊은 여자를 마주친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차에 태우는데, 둘은 언어로 소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몸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나눈다. /문학동네·1만7천500원



▲삶은 무엇으로 회복하는가=라르스 스벤센 지음, 이영래 옮김  
이 책은 희망을 단순한 감정이 나 낙관으로 보지 않는다. 스벤센은 희망을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 선택이 결합된 태도로 정의하며,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방향까지 결정짓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출발해 기독교 신학, 근대 철학, 그리고 현대 정치사상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희망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고 사용돼 왔는지 촘촘하게 짚어낸다. /더퀘스트·1만8천800원



▲우산도 우산이 필요해=보람 저  
비가 삶은 우산과 다정한 친구들이 아주 특별한 외출에 나선다. 우산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단단한 위로를 건넨다. 우산의 구멍처럼 치명적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는 친구들 곁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개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우산이 뒤집히는 ‘실수’의 순간을 ‘꽃’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통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과 타인의 아픔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공감의 힘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길벗어린이·1만5천원

## K-콘텐츠 넘어 ‘K-멘탈’...내면·존재 다루는 언어 제시

고수연 나주대 교수 ‘새장은 원래 없었다’ 출간



“당신은 갇힌 적이 없다. 단지 같은 생각을 반복했을 뿐이다.” K-푸드와 K-뷰티, K-콘텐츠에 이어 한국의 새로운 흐름으로 ‘K-멘탈’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내면과 존재를 다루는 언어로서 한국적 정서와 사유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고수연 나주대 교수가 펴낸 ‘새장은 원래 없었다’(호이테크

스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체성 회복과 내면의 귀환을 주제로 한 책이다. 작품은 지식과 정보, 습관과 루틴을 알고도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며,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해석 구조에서 찾는다. 저자는 사건 이후 반복 재생되는 해석, 이른바 ‘정체성 루프’가 개인을 규정한다고 본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진 자기 해석과 내면 서사라는 설명이다. 책은 한국어의 결을 살린 상징적 표현을 주요 개념으로 삼는다. ‘윤슬’, ‘거목’, ‘빛’, ‘산소’, ‘환기’, ‘귀환’ 등의 언어는 존재 회복의 방향을 설명하는 틀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속도의 시대를 넘어 ‘결의 시대’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변화의 방법을 새로운 기술이 아닌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힘’으로 풀어낸다. 또한 감성적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정체성 루프를 중심으로 뇌과학, 심리학, 영성의 관점을 결합한 점도 특징이다. ‘정렬 Decode Recode Create’의 구조를 통해 독자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며, 3분 아침·저녁 정렬, 1분 멈춤, 1분 관찰과 귀환, 21일과 66일 루틴 등 구체적 실천 방법을 함께 담았다. 한편 저자 고수연(사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The Inner Brain Code™’를 구축해온 코치로, 심리와 상담, 뇌과학, 영성 분야를 연구해왔다. 실제 코칭 현장에서 정체성 혼란, 번아웃, 상실, 진로 불안 등을 겪는 이들을 만나며 관련 사례를 축적해 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